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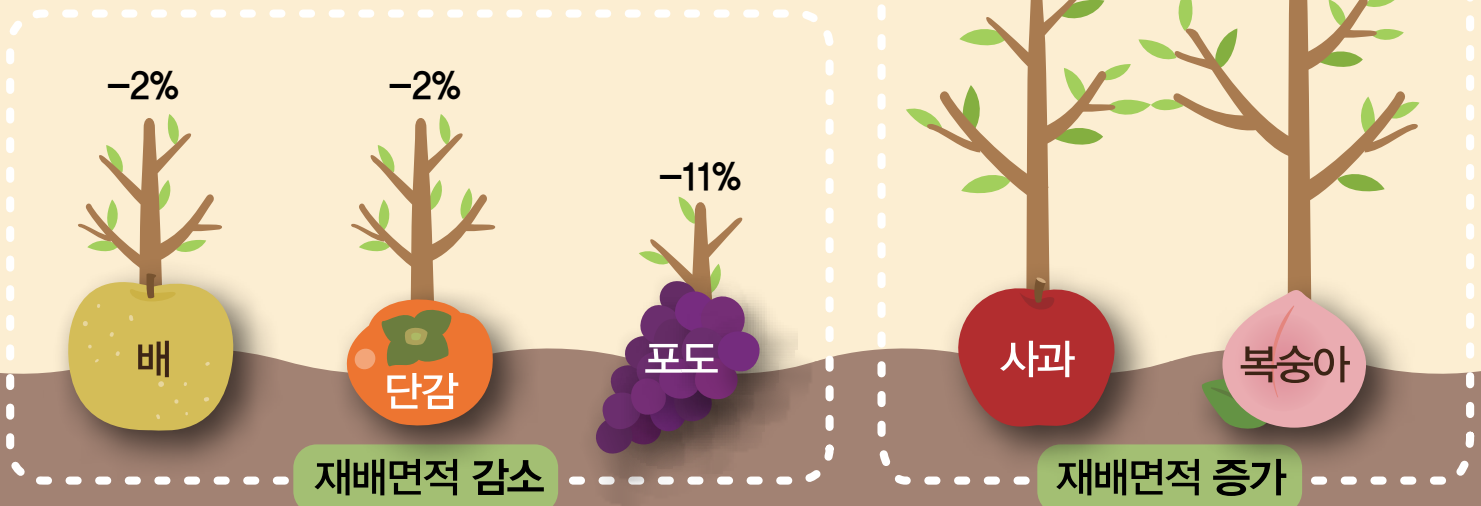
배를 제외한 과일류 12월 가격 전년보다 높을 전망

12월 출하량 전망 (전년 대비)



1월 이후 출하량 적으나, 설 사과·배 공급은 충분할 전망

2017년 과일 재배면적 전망 (금년 대비)



사과



■ 생산량 추정

단위: ha, kg/10a, 천 톤, %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6년	32,409	1,701	551
2015년	31,620	1,843	583
증감률	2.5	-7.7	-5.4

주: 2016년 단수는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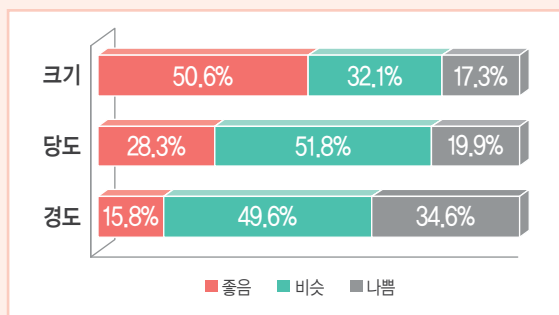
■ 저장량 추정

단위: 천 톤, %

2016년산	2015년산	증감률
322.9	343.3	-6.0

자료: 농업관측본부, 11월 30일 기준 추정치.

■ 저장사과 품질 (전년 대비)



자료: 농업관측본부, 11월 3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출하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12월	익년 1월 이후
-3.3	-6.4

자료: 농업관측본부, 11월 3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사과 월별 도매가격 (상품)

단위: 원/10kg

구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홍로	양광	후지		
2016년산	24,352	32,126	23,277		
2015년산	29,638	30,770	22,766	23,522	24,678
평년	32,032	33,881	28,872	30,533	34,109

주: 평년은 2011~2015년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7년 사과 재배면적 전망

단위: ha, %

구분	유목면적	성목면적	전체
2017년	9,495	23,439	32,935
2016년	9,193	23,216	32,409
증감률	3.3	1.0	1.6

주: 2017년은 농업관측본부 11월 3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임.

자료: 통계청.

저장 올해 사과 저장량 전년보다 6% 감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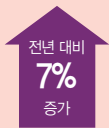
- 올해 사과 생산량은 착과수 감소와 폭염으로 전년보다 5% 적은 55만 1천 톤으로 전망된다. 저장량(12월~익년 6월)은 후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6%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 올해 저장사과 크기는 전년보다 크겠으나, 경도가 낮아 설 이후 장기저장성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가격 12월 사과 가격 전년보다 높을 전망

- 12월 사과 출하량은 저장량 감소로 전년보다 3%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2월 사과(후지) 평균 도매 가격(가락시장)은 전년(23,522원)보다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4천~2만 6천원으로 전망된다.
- 사과 전체 저장량은 적으나 설 사과 공급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니터 조사결과 후지의 대과 비율이 전년보다 6%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명절에 필요한 대과 위주로 저장이 많기 때문이다.

면적 내년 사과 재배면적 금년보다 2% 증가 전망

- 2017년 사과 재배면적은 금년보다 2% 증가한 3만 2,935ha로 전망된다.
- 내년 성목면적은 금년보다 1% 증가하고, 유목면적은 신규 식재가 늘어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장 배 저장량 전년보다 1% 감소 추정

- 배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와 폭염으로 비대가 나빠 전년보다 2% 감소한 25만 6천 톤으로 추정된다. 저장량(12월~익년 7월)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1%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 저장배 당도는 좋지만, 경도는 나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올해 미세열과와 무름과가 전년보다 많기 때문이다.

가격 12월 배 가격 전년보다 낮을 전망

- 12월 배 출하량은 전년보다 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순에는 저장성이 낮은 무름과의 소과 위주의 출하가 많아 가격이 낮겠지만, 중순 이후에는 품질이 좋은 배가 출하되면서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에 따라 12월 신고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전년(31,825원)보다 낮은 상품 15kg 상자에 2만 8천~3만원으로 전망된다.
- 내년 1월 이후 출하량은 저장량이 적어 2% 감소하지만, 설 성수기 공급량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저장배 경도 저하로 장기저장성이 좋지 않아 설 시기에 출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면적 내년 배 재배면적 금년보다 2% 감소 전망

- 2017년 재배면적은 금년보다 2% 감소한 1만 703ha로 전망된다. 성목과 유목면적은 금년보다 각각 1%, 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면적감소 요인은 도시개발, 작목전환 등으로 파악되었다.

■ 생산량 추정

단위: ha, kg/10a, 천 톤, %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6년	10,882	2,354	256
2015년	12,664	2,061	261
증감률	-14.1	14.2	-1.9

주: 2016년 단수는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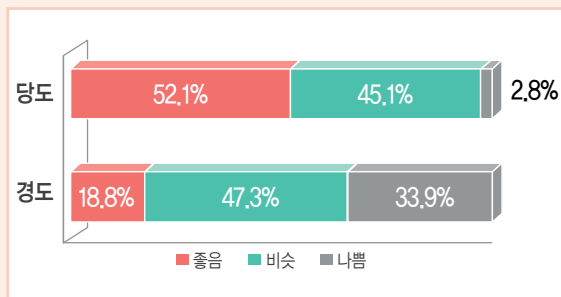
■ 저장량 추정

단위: 천 톤, %

2016년	2015년	증감률
128,0	129,1	-0.9

자료: 농업관측본부, 11월 30일 기준 추정치.

■ 저장배 품질 (전년 대비)



자료: 농업관측본부, 11월 3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출하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12월	익년 1월 이후
6.9	-2.3

자료: 농업관측본부, 11월 3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배 신고 월별 도매가격 (상품)

단위: 원/10kg

구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016년산	31,364	24,655	26,073		
2015년산	27,995	30,762	32,306	31,825	35,420
평년	37,037	29,880	35,249	35,581	38,912

주: 평년은 2011~2015년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 2017년 배 재배면적 전망

단위: ha, %

구분	유목면적	성목면적	전체
2017년	756	9,948	10,703
2016년	798	10,084	10,882
증감률	-5.3	-1.4	-1.6

주: 2017년은 농업관측본부 11월 3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임.

자료: 통계청.

감귤

전년 대비
4%
증가

전년 대비
42%
상승

■ 노지온주 생산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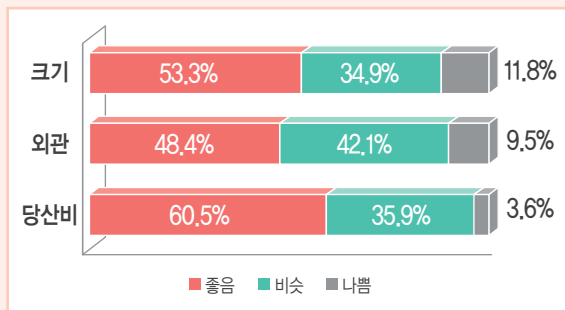
단위: ha, kg/10a, 천 톤, %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6년산	16,641	3,008~3,164	500~527
2015년산	16,775	3,095	519
평년	17,165	3,341	573
증감률	전년 대비	-0.8	-2.8~2.2
	평년 대비	-3.1	-10.0~-5.3

주: 2016년은 농업관측본부 11월 30일 기준 전망치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 12월 노지온주 품질 (전년 대비)



자료: 농업관측본부, 11월 3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노지온주 출하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12월	익년 1월 이후
3.7	-6.2

자료: 농업관측본부, 11월 3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노지온주 월별 도매가격 (평균단가)

단위: 원/kg

구분	10월	11월	12월	1월
2016년산	1,468	1,315		
2015년산	1,239	1,135	950	1,086
평년	1,341	1,162	1,207	1,278

주: 평년은 2011~2015년산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 2017년 감귤 재배면적 전망

단위: ha, %

구분	온주				만감류	전체
	계	노지	월동	하우스		
2017년	18,107	16,432	1,421	254	2,179	20,286
2016년	18,301	16,641	1,411	249	2,149	20,450
증감률	-1.1	-1.3	0.7	2.0	1.4	-0.8

자료: 농업관측본부, 11월 3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생산

올해 노지온주 생산량 51만 4천 톤 전망

- 노지온주 예상단수는 3,008kg/10a로 조사되었으며, 단수모형 분석결과 3,045~3,164kg/10a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노지온주 생산량은 50만~52만 7천 톤으로 전망된다.
- 노지온주 생산량이 전월 전망치(52만 7천 톤)보다 감소한 것은 태풍(차바) 및 잦은 비로 인해 부패과와 열과가 예상보다 많았기 때문이다.

품질

12월 노지온주 품질 양호할 듯

- 12월에 출하될 노지온주 품질은 전년보다 좋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10월 고온다습한 기상여건으로 산함량이 낮아 저장성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제주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올해 노지온주 당산비는 11.8로 평년(8.8)과 전년(9.7)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격

12월 노지온주 가격 전년보다 높을 전망

- 12월 노지온주 출하량은 전년보다 4%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저장성이 낮아 출하가 전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월 이후 출하량은 저장량 감소로 전년보다 6%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 12월 노지온주 평균 도매가격(감귤출하연합회 기준)은 출하량이 많으나, 품질이 좋아 전년(950원)보다 높은 kg당 1,250~1,450원으로 전망된다.

면적

내년 감귤 재배면적 금년보다 1% 감소 전망

- 2017년 노지온주 재배면적은 금년보다 1% 감소하나, 월동온주와 만감류는 각각 1% 늘어 전체 감귤 재배면적은 금년보다 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 올해 단감 생산량 전년보다 28% 감소 전망

- 올해 단감 생산량은 전년보다 28% 감소한 12만 6천 톤으로 전망된다. 저장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34%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품질 12월 단감 전년보다 크지만, 외관과 당도 불량

- 12월에 출하될 단감 크기는 후기 비대가 양호하여 전년보다 크지만, 당도는 낮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 8월 폭염이 지속되다가 과실이 갑자기 커지면서 꼭지들림과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로 인해 꼭지주변이 검게 변하는 등 외관이 불량하여 비상품과 비율이 전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격 12월 단감 가격 전년보다 높을 전망

- 12월 출하량은 저장량 감소로 전년보다 27%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12월 부유 평균 도매가격(가락시장)은 전년(16,276원)보다 높은 상품 10kg 상자에 2만 6천~2만 8천원으로 전망된다.
- 1월 이후 출하량은 저장량 감소로 전년보다 3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가격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또한 올해는 상품과가 적어 등급간 가격 차이가 전년보다 클 것으로 예상된다.

면적 내년 단감 재배면적 금년보다 2% 감소 전망

- 2017년 단감 재배면적은 금년보다 2% 감소한 9,345ha로 전망된다. 성목과 유목면적은 금년보다 각각 2%, 3%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감 생산량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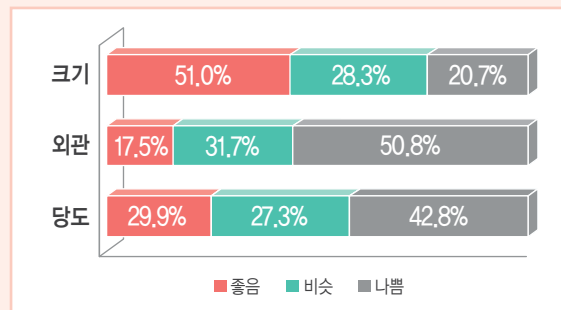
단위: ha, kg/10a, 천 톤, %

구분	재배면적	단수	생산량
2016년산	9,520	1,326	126
2015년산	11,849	1,468	174
평년	12,915	1,341	173
증감률	전년 대비	-19.7	-9.7
	평년 대비	-26.3	-5.7

주: 2016년 단수는 농업관측본부 추정치임.

자료: 통계청.

12월 단감 품질 (전년 대비)



자료: 농업관측본부, 11월 3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출하량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12월	익년 1월 이후
-27.3	-37.2

자료: 농업관측본부, 11월 3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단감 월별 도매가격

단위: 원/10kg

구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016년산	상품	27,610	18,802	20,582		
	중품	14,915	14,232	13,605		
2015년산	상품	33,232	16,789	14,752	16,276	17,457
	중품	18,226	12,128	10,188	11,747	13,111
평년	상품	35,989	22,390	19,074	21,362	27,004
	중품	18,772	17,482	14,215	16,607	18,809

주: 평년은 2011~2015년산 가격 중 최대, 최소 제외한 평균임.

자료: 서울농수산식품공사.

2017년 단감 재배면적 전망

단위: ha, %

구분	유목면적	성목면적	전체
2017년	801	8,544	9,345
2016년	823	8,697	9,520
증감률	-2.7	-1.8	-1.8

주: 2017년은 농업관측본부 11월 3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임.

자료: 통계청.



■ 2017년 포도 재배면적 전망

단위: ha, %

구분	유목면적	성목면적	전체
2017년	1,274	11,529	12,803
2016년	1,205	13,171	14,376
증감률	5.8	-12.5	-10.9

주: 2017년은 농업관측본부 11월 3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임.
자료: 통계청.

■ 2017년 작형별 재배면적 금년 대비 증감률

단위: %

비가림·노지	시설			전체
	가온	무가온	소계	
-11.5	-9.1	-7.0	-7.7	-10.9

자료: 농업관측본부, 11월 3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 2017년 지역별 재배면적 전망

단위: ha, %

구분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전국
2017년	2,330	2,182	1,162	7,129	12,803
2016년	2,418	2,649	1,328	7,981	14,376
증감률	-3.6	-17.6	-12.5	-10.7	-10.9

주: 2017년은 농업관측본부 11월 3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임.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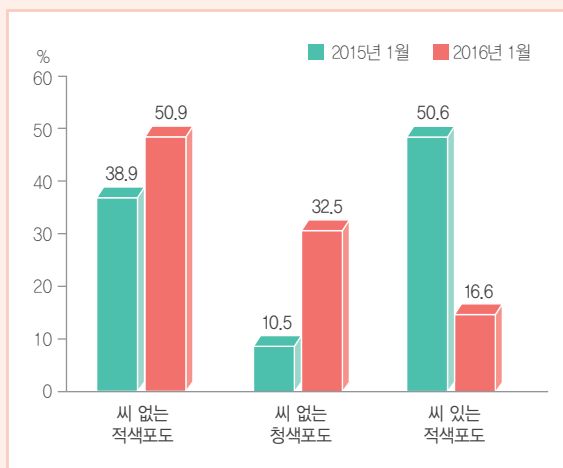
■ 2017년 품종별 재배면적 금년 대비 증감률

단위: %

캠벨 얼리	거봉	MBA	델라 웨어	청포도	전체
-16.1	-3.4	-7.2	-12.4	80.8	-10.9

자료: 농업관측본부, 11월 3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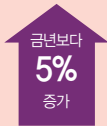
■ 소비자의 포도 선호 품종



자료: 농업관측본부, 2016년 1월 5일 소비자패널 조사치.

면적 내년 포도 재배면적 금년보다 11% 감소 전망

- 2017년 포도 재배면적은 금년보다 1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14~2016년 가격 약세와 농가 고령화 등의 이유로 전년에 이어 FTA폐업지원금을 신청한 농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이다.
- 성목면적은 금년보다 13% 감소하는 반면, 유목면적은 품종 전환이 많아 6% 늘어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작형별로는 비가림·노지 재배면적이 금년보다 12%, 시설 재배면적은 8%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설재배 중에서 가온 재배면적은 금년보다 9%, 무가온 재배면적은 7%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별로는 충청과 호남지역 재배면적이 금년보다 각각 18%, 13% 줄어들고, 최대 주산지인 영남지역 재배면적도 11%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다.
- 품종별로는 캠벨얼리와 MBA 재배면적이 각각 16%, 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다른 품종에 비해 노목 비율이 높고 가격도 좋지 않기 때문에 감소폭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 5~6월에 출하되는 델라웨어는 이 시기에 가격이 저렴한 수입포도 물량이 늘면서 재배면적이 금년보다 12% 감소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 2016년 5~6월 kg당 평균단가(가락시장): 델라웨어 7,362원, 수입포도 2,993원
- 반면, 청포도 재배면적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의 기호 변화에 맞추어 품종을 전환하는 농가가 늘면서 씨 없는 청포도인 샤인마스캇 식재가 많을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면적 **내년 복숭아 재배면적 금년보다 5% 증가 전망**

- 복숭아 재배면적은 FTA폐업지원사업(2004~2008년)을 실시한 기간 동안 감소하였으나, 폐업지원 대상과원의 식재 제한이 종료된 이후에는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최근 7년간 재배면적 증가세는 계속 이어져 연평균 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2017년 복숭아 재배면적은 금년보다 5% 증가한 2만 270ha로 전망된다.
- 유목면적은 신규 식재뿐만 아니라 포도 폐원신청한 일부 농가가 복숭아로 작목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보다 8% 증가할 전망이다. 성목면적은 유목의 성목 전환으로 금년보다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역별로는 경기·강원지역의 재배면적이 금년보다 1% 증가하고, 충청지역은 8%, 호남과 영남지역은 각각 3~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품종별로는 천도계 복숭아 재배면적이 금년보다 1% 증가하고, 유모계는 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17년 복숭아 재배면적 전망

단위: ha, %

구분	유목면적	성목면적	전체
2017년	5,569	14,700	20,270
2016년	5,166	14,137	19,303
증감률	7.8	4.0	5.0

주: 2017년은 농업관측본부 11월 3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임.
자료: 통계청.

■ 2017년 지역별 재배면적 전망

단위: ha, %

구분	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전국
2017년	1,550	6,721	1,915	10,081	20,270
2016년	1,539	6,209	1,868	9,685	19,303
증감률	0.7	8.2	2.5	4.1	5.0

주: 2017년은 농업관측본부 11월 3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임.
자료: 통계청.

■ 2017년 품종별 재배면적 전망

단위: ha, %

구분	천도계	유모계	전체
2017년	3,466	16,804	20,270
2016년	3,437	15,866	19,303
증감률	0.8	5.9	5.0

주: 2017년은 농업관측본부 11월 30일 표본농가 및 모니터 조사치임.
자료: 통계청(2016년 전체 면적).

올 겨울 과수 동해 관리 철저히 해야

- 올 겨울은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기온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기상청)되어 동해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동해 예방을 위해서는 나무의 원줄기(밑동)를 보온재(부직포, 벚짚)로 싸거나 백색 수성페인트로 칠해야 한다. 주간부에 동해 피해 발생 즉시 고무밴딩이나 형짚 등 결속자재를 이용해 감싸주면 상처 유합이 촉진되어 고사가 방지된다.

■ 과종별 동해 한계온도와 지속시간

단위: °C

과종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캠벨얼리	거봉	
동해 한계온도	-30~-35	-25~-30	-20~-25	-13~-20	-15~-20
지속시간	10시간 이상	8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자료: 농촌진흥청

저장량 추정

올해 사과·배·단감 저장량 감소 추정

- 사과 저장량은 후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6% 감소 추정
- 배 저장량은 생산량 감소로 전년보다 1% 감소 추정
- 단감 저장량은 생산량 크게 줄어 전년보다 34% 감소 추정

12월 가격 전망

배 도매가격 전년보다 하락, 사과·감귤·단감은 상승 전망

- 사과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2만 4천~2만 6천원/10kg 전망
- 배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은 2만 8천~3만원/15kg 전망
- 감귤 가격은 출하량 많으나 품질 좋아 전년보다 높은 1,250~1,450원/kg 전망
- 단감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2만 6천~2만 8천원/10kg 전망

2017년 재배면적 전망

내년 사과·복숭아 제외한 과일 재배면적 감소 전망

- 사과·복숭아 재배면적은 신규 식재 늘어 금년보다 각각 2%, 5% 증가 전망
- 배·단감 재배면적은 농가 고령화와 도시개발 등으로 금년보다 2% 감소 전망
- 감귤 재배면적은 노지온주 줄어 금년보다 1% 감소 전망
- 포도 재배면적은 FTA폐업지원금 신청 많아 금년보다 11% 감소 전망

농업관측정보는 표본조사와 수급분석모형을 이용한 전망자료이므로 통계청의 통계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농업관측(과일)」은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가 농업인들의 재배의향, 작황, 가격 등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분석한 후, 농업 및 통계 전문가들에게 자문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과일 관측은 사과, 배, 감귤, 단감, 포도, 복숭아 품목에 대하여 매월 5일에 발표됩니다.

월보 및 속보 관련 정보를 핸드폰 문자(SMS)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농업관측본부 홈페이지(<http://aglook.krei.re.kr>) 또는 담당자(061-820-2285)에게 연락바랍니다.

2017년
5월호 예고

예정일자:
2017년 5월 5일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rei.re.kr>

<http://www.mafra.go.kr>

☎ 061) 820-2362 | FAX: 061) 820-2410

☎ 044) 201-2252 | FAX: 044) 868-0132

담당자: 박미성(총괄), 신유선(사과, 복숭아), 이미숙(배, 포도), 박한울(감귤, 단감), 김수빈(그래픽)

감 수: 송미령(농업관측본부장), 김성우(원예실장)